

금호타이어 ‘풍전등화’

광주공장 부지 복합소핑물 언급 없어 매각 차질 예상 내주 ‘2000억 규모’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5차 변론 내년 부채 1조 만기...고용만 ‘1만명’ 경제 위기 촉각

광주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상여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원자재값 급등과 물류난 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통 3사’가 복합소핑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도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에 복합소핑물이 들어설 경우 현 광주공장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져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해당 사업에 개발업체가 뛰어들지 여부도 확실할 수 없게 됐다. 가뜰이나 용도변경 문제로 발목 잡혀 있는 광주

공장 이전이 무산되는 것과 동시에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회사의 존립마저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1일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오는 9월7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5차 변론이 진행된다. 5차 변론 이후 오는 10-11월 중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금호타이어 노사 뿐 아니라 지역 경제계까지 주목하는 재판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약 2000억원을 지급하게 될 수 있어서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보유액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가 재판에서 패소해 2000억원을 배상하게 되면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 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까지 예견된다는 게 금호타이어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라우크라 전염 등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급등 등 온갖 약재가 겹친 데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2604억원) 대비 41.1% 증가한 8941억원

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0.2% 수준인 18억원에 불과했다. 복합소핑물 부지에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광주 복합소핑물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한 때 소핑물 입지 후보 중 한 곳으로 광주공장 부지가 오르내렸으나, 정작 유통 3사는 광주공장 부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을 겪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1조2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공장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한 뒤, 높은 값에 매각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광주에 복합소핑물이 들어서게 되면 광주공장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투자자들도 개발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할뿐더러, 상업시설 개발도 난항이 예고된 광주공장 부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소송에 광주공장 이전마저 차질이 빚어지면 사실상 금호타이어는 더 이상 경영정상화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급업체와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만여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회생 불가능한 위기에 빠진다면 지역경제 역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고 통상임금 등 각종 소송리스크까지 겹쳐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속적인 고수익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지역별 판매 가격 운용, 내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공장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 등 금호타이어의 미래가 걸린 광주공장 이전은 광주시와 컨소시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효성, 수소비즈니스 청사진 밝힌다

국내 최대 수소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 참여...액화수소플랜트 건립 현황 등 소개

효성은 31일부터 9월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에서 액화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수소관련 제품에 대한 소개 공급을 포함한 그룹차원의 수소비즈니스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디지털미디어와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액화수소의 밸류 체인을 소개해 효성 수소사업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우선 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내년 완공 예정인 효성중공업의 액화수소플랜트 건립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연산 1만3000t 규모에서 3만9000t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 나갈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전남도 등과 협력해 향후 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과 수전해를 통해 ‘그린 액화수소’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수소 충전소 공급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은 내년 액화수소플랜트 완공 시기에 맞춰 울산에 제 1호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광양, 경산, 거제 등 전국 4곳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한편, 향후 전국 30여 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효성티앤씨의 나일론 소재 등이 적용된 수소 연료 탱크도 전시한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소 연료탱크용 라이너 소재로 나일론을 활용했다. 라이너는 수소 연료탱크의 내부 성형 플라스틱으로, 수소의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기존 금속 라이너 대비 가볍고 견고해 수소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연료탱크에는 효성첨단소재가 독자기술로



효성 직원이 H2 MEET 2022에서 효성의 액화수소 밸류체인을 설명하고 있다.

개발한 탄소섬유도 사용된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높아, 안정적인 내구성도 필요한 수소차용 연료탱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효성첨단소재는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대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연간 2만4000t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영산강 물관리 일원화 논의

영·섬유역 상생협력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부는 지난 31일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 방안과 영산강 수계 서·북부 지역 물관리일원화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광주시 서구 유담부티코호텔에서 열린 회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열리는 3차 정기회의이다. 상생협력위원회는 회의장에서 가뭄 현황 및 대응 방안, 영산강 수계 서·북부 지역 물관리일원화 사례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유역의 물 현안 해소를 위해 학계, 언론,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역의 물관리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의를 주최한 김현식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기후재난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관리에 대한 역할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역 내 물관리와 재난을 잘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설비 안전 점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이 지난 30일 담양 전력구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오는 10월14일까지 59일간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력설비 상태와 안전을 진단한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해외취업 도전 ‘광주 글로벌 잡페어’

산업인력공단, 26~27일 조선대서...11개국 인사담당자 대면 면접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광주시, 조선대학교와 함께 오는 9월26-27일 조선대 광주 이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를 개최한다. 인력공단이 광주에서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적인 리조트 기업 ‘클럽메드’와 글로벌 국제회의 기획사 ‘마커스애반스’를 비롯해 11개국 52개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가 360여명의 글로벌 인재를 찾을 예정이다. 광주에 방한해 대면 채용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은 일본(6개사), 북미(5개사), 일본 제외 아시아 국가(4개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의 구인기업과 글로벌 리크트르다. 채용 직종도 경영지원 사무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법률 사무원, 조리사 등 다양하다. 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채용정보 플랫폼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9월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구인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해서는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으로, 채용면접 외에도 채용설명회와 해외취업상담 등 구직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설명회는 ▲해외취업 준비전략 특강 ▲일본 및 말레이시아 기업 채용설명회 ▲영문이력서 작성법 등 해외 기업 인사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국가별 해외취업 최신 정보를 비롯해 일어 이력서·면접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등 일대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전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진출에 도전해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기아,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 합의

2일 조합원 투표

기아 노사는 지난 3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0차 본교섭에서 2년 연속 무분규로 2022년 임단협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합의한 것은 1998년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아울러 ‘미래변화TFT’를 신설, 자동차산업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단협 내 복지 관련 조항들도 합의됐다.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되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 교육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국가 간 통상 이슈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는 데 노사 모두 공감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오늘~18일 14개 부문 모집

기아가 9월1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생산 ▲구매 ▲품질 ▲제조설비 ▲경영지원 ▲고객경험 ▲고객안전 ▲국내사업 ▲해외사업 ▲신사업·기획 ▲전략·상품 ▲Tech ▲특수사업 ▲재경 등 총 14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다. 최종 합격 발표는 12월 중으로, 입사는 2023년 초 예정이다. 채용 홈페이지(carrier.kia.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는 이번 대졸 신입 채용부터 하반기는 9월

로 채용 시작 시점을 통일해 부문별로 일괄 채용함으로써 지원 및 입사 시점이 고정돼 지원자들이 채용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준비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2.05(+21.12)
↑ 코스닥	807.04(+10.02)
↑ 금리(국고채 3년)	3.685(+0.043)
↓ 환율(USD)	1337.60(-9.10)